심전도검사의 중요성

검 사 부

조기발견으로 조기치료

생명의 고귀함.

벅찬의지로 미래를 향하여 용솟음 치는 가슴속에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 할 것이다. 그러나 예측 할 수 없는 사고로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운명속에서 적응하는 생명체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 가끔 매스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때마다 절박한 심정을 느끼지만 사회 에 몸담고 있는 곳이 의료기관이기에 더욱절실한 마음이 든다. 자주 심장이식 수술도 요사이는 행하여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 함으로써 조기치료에 성공률을 높일 수도 있다. 이에 준해 심전도 검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간단히 쉽게 이야기 하면, 심전도란 심장의 박동상태를 파형에 옮겨서 측정하는 검사로서 이를테면 부정맥의 분석, 발작성 빈박의 분석 외에 급성 심근 경색, 협심증의 진단을 할 수 있다. 협심증이라고 의심이 갈경우 안정시의 심전도에 이상이 없을때는 운동부하를 한 뒤의 심전도를 찍어 진단하는 수 가 흔히 있다. 그리고 심전도를 찍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심장의 축(원통형으로 생각하여 그 중심축)이 보통인지, 혹은 얼마나 있는지 누워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비대의 여부 즉 혈압등이 높은 경우에는 심실 여분의 일을 해야 되므로 심실의 벽 비후, 심장의 근육 수축이나

심전도검사 장면

이완 또 관상 동맥이 심장 근육에 혈액을 보고 하고 있으나 그것이 충분한 지의 여부, 비교적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가령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등은 심전도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어떤 부분에 일어 났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심전도는 혈액속의 광물질, 특히 칼륨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도 측정할 수가 있다. 칼륨의 양의 이상에 의해서 심장 근육의 수축 방법이 달라져 이로 인하여 심전도의 파형이 변화하므로 이 변화에 따라 혈액속의 칼륨이 측정된다. 또한 맥의 리듬 즉 부정맥의 해석에는 심전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맥의 부정이 정확하게 기록되므로 뒤에 천천히 이것을 분석하면 어떤 부정맥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 또 부정맥과 관련된 것이지만 자극전도계의 고장 장소,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심전도에서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심낭의 병, 심낭속에 물이 고여 있다든지 유착되어 있다든지 하는 병도 추정할 수가 있고 어떤 종류의 심장병일때 사용되는 디기탈리스라는 약의 영향도 어느정도 알 수 있다. 이상이 대체로 심전도에서 알 수 있는 심장의 주요 장해이며 청진기로는 알 수 없는 심장병을 심전도로 알 수가 있다. 또한 각종 빈혈증이나 대수술(흉곽수술)의 경우에 이용되고 급성열성질환, 내분비 이상, 중년 이후의 사람에게 정밀검사를 할때 필요하다.